

# 100일간 최대 年 12%... 금융권 '초단기·고금리 상품' 봇물

〈에쿠온저축은행 '나날이적금'〉

KB스타퀵왕적금 최고 연 10%  
삼성생명 6개월 적금 최고 연 8%  
모바일·인터넷 가입, 실적 등 요구

자금 유동성 높지만 운용방식 달라  
기간 긴 예금·적금이 유리할 수도

금융권이 6개월 이내 만기인 '초단기 금융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판매하는 '초단기 적금'에 이어 '초단기 저축보험'까지 등장했다. 비대면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고객 이동도 활발해진 만큼, 높은 금리를 앞세워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이다.

5일 각 은행 고시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M뱅크)과 4개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전북), 3개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토스·케이)이 취급하는 상품 중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며 최고 금리가 연 5% 이상인 상품은 15개다.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KB국민은행의 'KB스타퀵왕적금'으로 최고 금리는 연 10%에 육박한다. 이어 광주은행의 '도전 골든100적금'이 연 7.1%

〈최근 판매중인 '초단기' 금융상품〉

취급 기관	상품명	최고금리(연)	기간	우대금리 요건
KB국민은행	KB스타퀵왕적금	10%	100일	자사 앱 사용
광주은행	도전 골든100적금	7.1%	6개월	자사 앱 사용, 신규 고객
에쿠온저축은행	나날이적금	12%	100일	자사 앱 사용
웰컴저축은행	웰컴 디지털카 100일 적금	10%	100일	타사 연계 앱 사용, 신규 고객
삼성생명	삼성 팝콘 저축보험	8%	6개월	자사 앱 사용

/각사

의 최고 금리를 제시해 뒤를 이었다. 은행권 적금 상품 금리가 통상 연 4%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초단기 적금' 상품의 금리는 높은 편이다.

제2금융권에서도 고금리성 '초단기 금융상품'을 취급한다. 에쿠온저축은행은 최고 연 12%의 금리를 제공하는 '나날이적금'을 판매중이며, 웰컴저축은행도 최고 연 10%의 금리를 제공하는 '웰컴 디지털카 100일적금'을 취급하고 있다.

초단기 금융상품 열풍에 보험사도 뛰어들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말 최고 연 8%의 금리를 제공하는 6개월 만기 저축보험 상품인 '삼성 팝콘 저축보험'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이러한 초단기 금융상품은 지난해 4월 한국은행이 예·적금 상품의 최소 만기를 1개월(적금 기준, 예금 상품 최소 만기는 6개월)까지 낮추면서 시장에 처음 등장했다.

초단기 금융상품은 금리 대비 가입 기간이 짧은 만큼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은 많지 않지만, 가입 기간이 짧은 만큼 자금 유동성이 높아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초단기 금융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는 것은 비대면 금융 확산으로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금융상품 비교 및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금융상품의 유희리를 비교해 복수의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이 늘고 있기 때문

이다.

실제 각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초단기 금융상품들은 우대금리 요건으로 '모바일·인터넷 가입', '자사 모바일 앱 반복 사용', '신규 거래·장기간 미거래', '자사 계좌 사용 실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높은 금리를 앞세워 금리에 예민한 '금리 노마드(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융상품을 찾아 이동하는 고객)'를 끌어들이고, 자사 모바일 앱 및 계좌의 사용을 유도해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달 비용 하락으로 은행권 예·적금 금리 하락이 계속되는 만큼,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가입 기간이 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초단기 금융상품은 자금 유동성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만기가 길지 않은 만큼 이자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반 예금보다 낮은 경우도 많다"라며 "예금 금리 하락세도 계속되는 만큼,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선 일반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진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신한은행 이동점포 밴버드. /신한은행

## 신한은행 추석 이동점포 운영 中 15조 자금지원

신한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경영 및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이동점포 '밴버드'를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하행선)에서 운영한다. 기간은 13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교환, 통장정리 등 간단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자동화기기(ATM)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또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자금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15조 1000억원(신규 6.1조 원, 기한연장 9조원) 규모의 자금을 10월 4일까지 지원한다. 신규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10억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귀향하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돕기 위해 금융지원도 함께 시행하게 됐다"며 "모든 고객들이 행복하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 하나금융, 멕시코 영업채널 확장... 몬테레이 사무소 개소

현지 진출 韓 기업 등 지원

하나금융그룹이 멕시코 북동부 지역 대표 산업도시인 몬테레이(Monterrey)에 하나은행 멕시코법인 산하 '몬테레이 사무소'를 개소했다.

멕시코 몬테레이는 미국과 국경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거점을 운용할 수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니어쇼어링(nearshoring)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하나금융은 이번 몬테레이 사무소 개소를 통해 이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자동차부품 회사 등을 지원한다. 기업과 교민은 물론, 현지 손님도 하나은행 멕시코법인의 금융 상품·서비스를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은형 부회장은 5일 "2019년에 멕시코에 진출해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다양



이은형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 세번째)이 허태완 주멕시코 대사(네번째), 호세 라몬 카날레스 마르케스 멕시코 금융위원회(CNBV) 부위원장(다섯번째), 엠마누엘 루 누에보 레온(Nuevo Leon) 주정부 차관(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화했다"며 "멕시코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금융 소통 창구, 몬테레이 사무소를 통해 현지 손님까지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아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몬테레이 사무소의 개소를 기념해 멕시코 자선교육기관인 '찰코 소녀의 집(Villa de las Nin

as, Chalco)' 학생들에게 공학용 계산기 200개를 기증했다.

'찰코 소녀의 집'은 1964년 한국에서 창설된 마리아수녀회가 1991년 멕시코 찰코 지역에 세운 기숙학교로서, 학업의 의지는 강하나 가정 형편 등이 여의치 않은 여학생들을 멕시코 전역에서 선발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전액 무료

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기증한 공학용 계산기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전에 조사해 전달한 것이다. 하나금융은 앞으로도 멕시코 현지 지역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글로벌 ESG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서울 집값 24주 연속 상승... 매수심리는 하락세

### 주간아파트동향

매매가격 전주대비 0.21% 올라  
서울숯리버뷰자이 6000만원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4주 연속 올랐다. 반면 매매수급지수는 3주째 하락세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9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27일 17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24주 연속 올랐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성동구

(0.55%→0.43%)가 금호·행당동 선호 단지, 광진구(0.33%→0.32%)는 광장·자양동 교육환경 양호한 단지, 마포구(0.31%→0.30%)는 대흥·염리동 대단지, 서대문구(0.22%→0.19%)는 홍제·남가좌동 역세권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송파구(0.44%→0.31%)는 신천·잠실동 대단지, 서초구(0.50%→0.41%)가 반포·잠원동, 강남구(0.33%→0.30%)는 개포·압구정동 준신축·재건축 단지, 양천구(0.24%→0.20%)는 목·신정동, 영등포구

(0.28%→0.20%)는 신길·영등포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서울숯리버뷰자이'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20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 매매가격(19억4000원) 대비 6000만원 상승했다.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뷰신반포'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78㎡가 40억원에 거래되면서, 2개월 만에 2억원 올랐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하락했다. 9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2로 전주(104.0)보다 0.8포인트 내렸다. 8월 둘째 주부터 반등했으나 다시 하락세다.

매매수급지수는 한국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선호 지역·단지에 대한 국지적 상승 거래는 지속적으로 포착되나 대출 여건 관망, 단기 급등 단지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다"며 "상대적인 매물소진 속도가 느려지면 상승폭은 전주 대비 축소됐다"고 말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서울동구고 방문 청소년 금융교육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청소년 금융교육을 위해 강단에 섰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동구고등학교를 방문해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오 회장은 '금융업과 금융사기 예방'을 주제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금융업에 관한 소개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강의에는 1·2학년 재학생 260명이 참석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동구고와 1사1교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꾸준히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발전기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오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금융에 대한 건강한 습관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